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체계 구축

- 6월 29일 국토부-부산시-경상남도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추진 위한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며,
 - 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추진되었다.
 - 이를 위해, 3월 30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고시하는 경우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 법 개정 전에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고시 이후 보상 추진 가능
-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부산시·경상남도과 협약 체결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체계가 마련된 만큼,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책임자	팀 장	홍복의 (044-201-5207)
		담당자	주무관	유욱재 (044-201-5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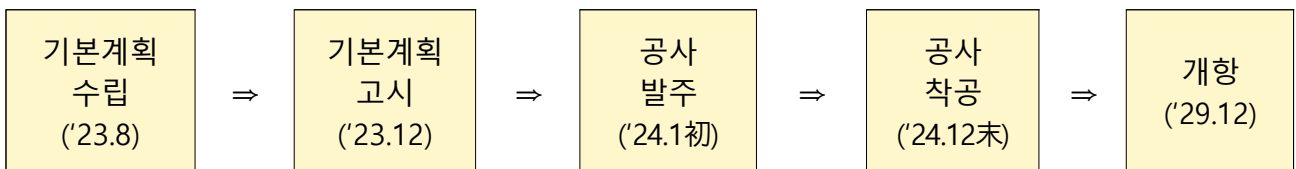
□ 사업 목적

-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건설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 추진 경과

- '21. 2.26.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의결 (3.16. 공포, 9.17. 시행)
- '21. 5.21.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21.5.21 ~ '22.4.18)
 - * 사타결과 : (면적) 400만㎡ / (활주로) 국제선 3,500m 1本 / (총사업비) 13.7조원
- '22. 4.26, 29.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무회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23. 3. 13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22. 8.31~ :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중

□ 건설추진 로드맵('23.3.14)



* 가덕도신공항법 개정('23.3.30)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23.12) 이후 보상착수 가능

□ 보상업무 추진체계

